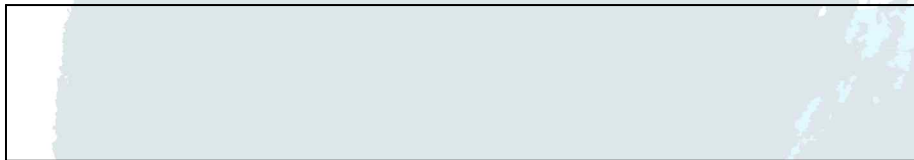


RDA Interrobang (60)
(www.rda.go.kr)

: (031-290-0286)

- 융화와 존중으로 빛어내는 하모니 -

2012. 4. 4. (제60호)



목 차

I .		1
II .		6
III .		10
IV .		19



RDA 인테러뱅 제60호 농촌 다문화, 공존의 시대

2012.4.4. 발간



OECD 19 2

, (4)

, (多文化)

9

○ 20

- 2.9% , , ('00,)

O

1)

— / / / / /

2

- /

▷ 최근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적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타인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되면서 다문화 관련 뉴스가 증가

-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은 민족과 인종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제안된 정치적 개념
- 다문화 사회란 여러 단일 문화가 모여 공존하며, 서로 영향을 주면서 그 나름의 문화를 유지, 발전시키고 있는 사회를 부르는 학술적 단어
- 다문화 현상은 독자적인 여러 문화들이 서로 공존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하며 음악, 미술, 음식, 패션 등에 영향

1) , ' , . , 2008

2) _____, 2009

□

○

,

-

-

,

.

(

)

○

-

,

,

,

,



로마의 판테온



스페인 알함브라궁전



간다라 불상



실크로드 돈황석굴

□

○

-

□

○

, , ,

- ()

,

()

○

-

, ,

,

* 학술적으로는 문화접변(文化接變)이라 불리는 현상으로 이웃한 문화가 서로 장단점을 주고 받으면서 발전된 결과를 낳는다는 이론



그리스풍의 대영박물관



영국의 본차이나



프랑스의 오벨리스크



모네 '수련과 일본 다리'

□

19

○

, , ,

* 에콰도르 키토 등지의 스페인식 건물들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

○

□

○

* 이집트, 그리스 등에서는 오벨리스크, 미이라, 엘진 마블 등을 반환 요청 중

○

* 신부론 궁전의 중국식 방, 푸치니의 ‘나비부인’, 모네의 ‘일본 다리’ 등

□ 1

○

,
-
2

* 6개 민족이 연합한 유고슬라비아, 2개 민족이 연합한 체코슬로바키아 등

20세기 세계 지도를 변화시킨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91)

▷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는 획일화된 사회에서 벗어나 고유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되찾고자 하는 움직임을 확산시킨 사건

- 소비에트 연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해체
- 체코슬로바키아는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유고슬라비아는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의 민족국가로 분리

□

○

(靈歌)

○

□

○

-

○

- KKK , () ,
'05, 07 (, Banlieu)

□

○

○

○

45%

○

선진국이 사회통합을 위해 지원하는 공통 다문화정책들

- ▷ 공통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시행되는 사항은 이주민에 대한 교육 지원
- 본인과 자녀에게 적응을 위한 언어교육을 정부지원으로 시행하고 적응기간 중 출신국 언어로 소통가능한 서비스와 의료 및 사회적응을 위한 비용을 지원

II.

,

□

,

,

○ 1.9% 91.9 ('10)

- '00~'08 19.9% OECD

19 (5.9%)

* 같은 기간 중 내국인의 연평균 증가율은 0.42%에 불과

○

□

.

○

- 10%

- 1.3%('01) 9.6%('10)

○ 2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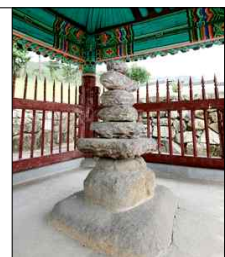
(92.6%)

기록으로 보는 최초의 결혼 이민

▷ 가야국 김수로왕의 부인은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

- 허황옥의 아들 10명 중 허씨를 사용한 2명이 김해 허씨의 시조

* 현재 김해시 구산동에 남아있는 파사석탑은 삼국유사에 따르면 허황옥이 아유타국에서 바다를 건너올 때 파신(波神)의 노여움을 잠재우기 위해 싣고 온 것



파사석탑

□

○ 90

- '04~'10

27.4~41.4%

* 현재 농어촌의 결혼이민 여성은 약 12만명 정도로 추산

○

* 자녀 2명 출산 시, '20년 19세 미만 농촌 인구의 절반이 다문화 2세대로 구성

□

○

('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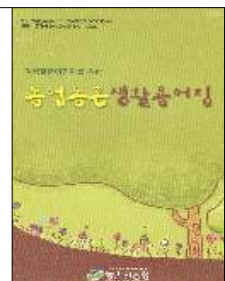
* 이민자의 출신국에 따라 한국인이 느끼는 사회적 거리는 다양

○

농촌 다문화 연구와 농촌진흥청

▷ 다문화를 농촌문제 해결의 자연스런 수단 중 하나로 인식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 중

- 결혼이민 여성들이 단기간 내에 농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농업농촌생활용어집」 등 다수의 책자 발간·보급
-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아열대작물의 재배법 연구를 수행



(明暗)



○ 20~30

(‘11,)

- 3) ‘95~‘00 4 ‘00
~‘05 5.6 ‘05~‘10 3.4

- GDP

* ‘09년 농림어업분야 GDP 성장률(6.4%)은 지역내 총생산 성장률(0.8%)의 8배

* 여성 생산가능인구⁴⁾ 중 결혼이민자의 비율: (‘00) 1.27% → (‘10) 4.19

- ,

○ 2

○ ,
,

○ .

다문화의 실천적 역할 영역과 패러다임에 따른 역할

역할 영역	농산업	농촌 커뮤니티
비즈니스	농촌농업 문화산업의 원동력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환경	농산업의 문화화를 위한 어메니티 자원 구축	농촌 다문화의 생활환경 개선
집단	농촌사회의 개방성 증대	농촌 공동체의 유대감 형성

* 자료: 장경빈(2011)에서 응용

3)

4) 15~64 ‘09 72.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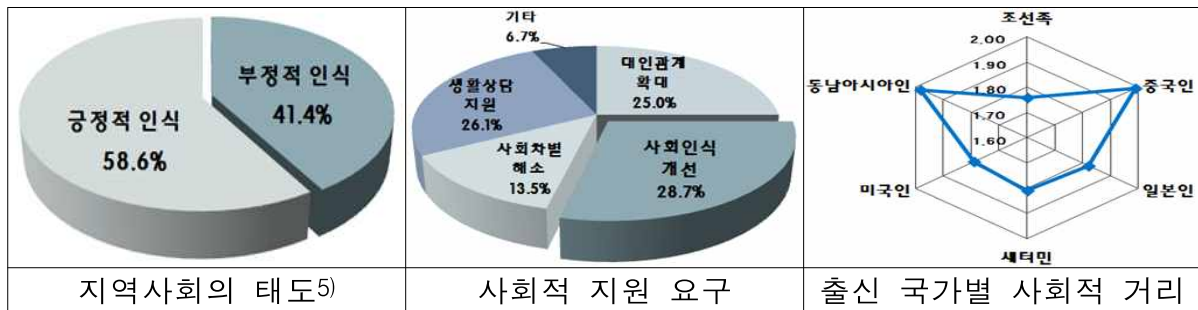
○

- 0.5ha (2ha) ,

○

- (28.7%) (13.5%)

* 새터민·조선족·미국·일본 출신보다 중국·동남아시아 출신 이민여성에게 거리감을 더 크게 느낌



○

- .

○

*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심리적 안정에는 다문화 요인보다 또래관계, 교사와 가족의 지지가 중요('07, 농촌진흥청)

5) (2011), (2011)

III.



(multiculture)

‘MULTI’

○ Mainten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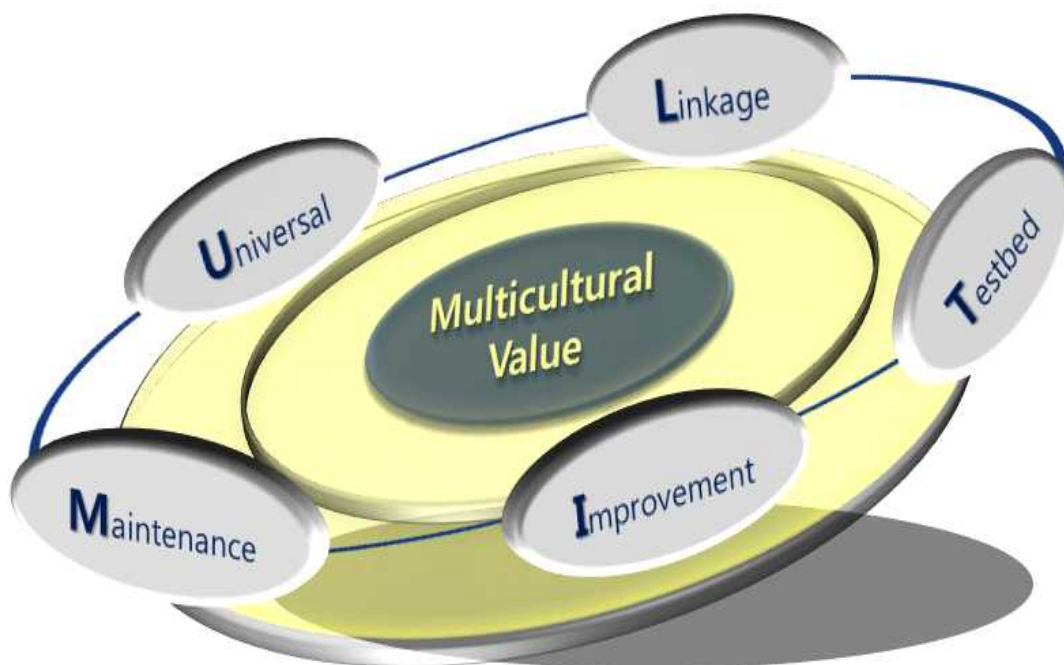
○ Universal:

○ Linkage: (glocal)

‘新’

○ Testbed:

○ Improvement:



농촌에서 찾아보는 다문화의 가치

Maintenance

농촌 유지·발전의 원동력

□ 70

○

(逆)

* '70년 1,442.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4.7%를 차지하던 농가인구는 '09년 300만 명을 밑도는 6.5%까지 하락

□

(‘11,)

○

20

- 2005 40.11 2010 47.61 7.5
(3.7) 2

○

-

4.19%

25년 만에 아이 울음이 울려 퍼진 농촌

▷ LA타임즈에 우리 농촌에 시집 온 결혼이민여성의 출산 이야기가 크게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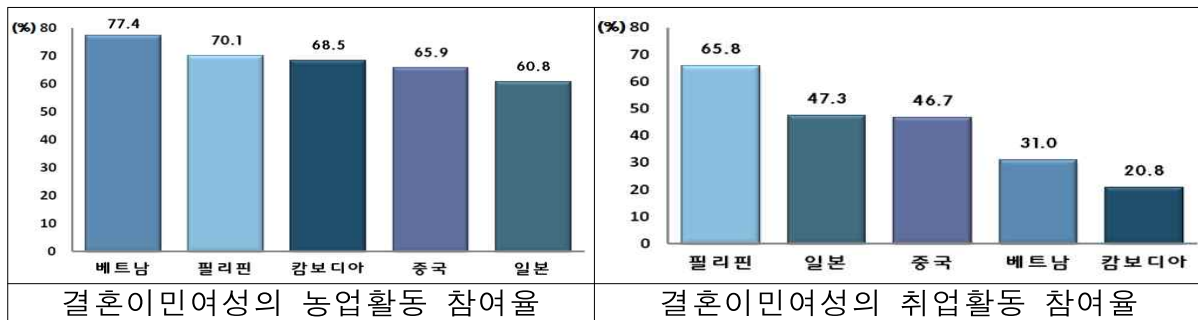
- “S. Koreans Search Far and Wide for a Wife”라는 제목으로 1면과 10면에서 크게 다룸('06.9.21.)
- 우리의 남아선호에 따른 성비 불균형과 여성들의 농촌기피현상을 다루며, 절멸 위기에 처한 농촌에 결혼이민여성이 기쁨을 주었다고 서술



NEW FACES: Foreign wives such Yi Ok-ran, an ethnic Korean from China, and her daughter help boost rural populations.



○ 69% ,
73%, 43% ('09,)



○ GDP
('11,)

* 농림어업 GDP 성장률과 결혼이민 유입의 상관성: 농촌 r=.79, 농가 r=.78



		
엠마 씨(필리핀) ⁶⁾	후인티엠 씨(베트남)	리엔 씨(베트남)
우리 농촌 발전의 주역으로 떠오르는 결혼이민여성들 ▷ 필리핀 출신, 나바로 엠마(충남 예산·35)씨는 논 3,000평과 밭 500평을 경작하고, 필리핀 식료품을 판매하는 등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 베트남에서 온 후인티엠(전남 곡성·28)씨는 영농교육으로 익힌 수준급의 경운기 운전 실력과 함께 봄 고추경작을 준비하는 당찬 우리의 여성농업인 ▷ 베트남 출신, 리엔(경북 경주·26)씨는 남편과 함께 벼, 도라지 등을 경작하며 복합 영농으로 전문 농업인의 꿈을 키우는 중		

6)



* 호주의 다문화 장터, 록스마켓(Rock's Market)은 다문화 공예품, 예술품 등을 팔며, 내외국인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발돋움



* 양평 나섬 다문화 생태마을은 다문화 국가의 언어와 놀이 배우기, 전통 의상 체험, 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카라반 축제의 참여자



캔버라 축제 로고



카리바나(Caribana) 축제

세계 속의 3대 다문화 축제

- ▷ 캐나다의 카라반 축제(Festival Caravan)에는 매년 200만 명이 방문하며, 카리바나 축제에는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여 3억 달러 이상 수익 창출
- ▷ 호주 캔버라 축제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타민족 간에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활용한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

Linkage

다문화를 통한 新 문화 동맹



(glocal)

‘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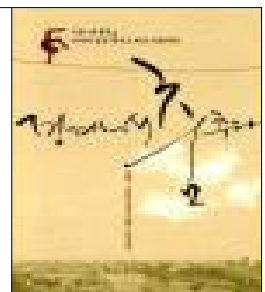
-

(bilingual)

* 결혼이민자의 8.2%가 초등학교 자녀에게 모국어 지도를 요구('09, 복지부 등)

다양한 언어가 보여주는 넓은 세계

- ▷ 다와다 요코는 하나의 언어 안에 있으면 더 넓은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두 언어를 섞어 책을 집필
- ‘한 가지 언어로만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생기게 된다’며 ‘경계를 벗어나 생각하라’고 주장
 - 그의 저서는 앞부분은 독일어로, 뒷부분은 일본어로 구성



Testbed

사회 문제 해결의 시험장

□

○ OECD

(‘09,)

* ‘09년 우리나라의 ‘외국문화개방도’와 ‘이민법’은 최하위 수준(스위스 국제 경영개발연구원 보고서)

□

○ ()

- 200

○ ()

* 신금옥씨(전남)는 지역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다니는 공부방에 간식을 만들어주는 봉사활동을 통해 다문화 가족의 어려운 육아에 도움



사토미씨(일본)7)



굴바르친씨(키르기스스탄)



신금옥씨 가족(중국)

7) KBS,

Improvement

마을 분위기와 소득의 향상

(浮上)

□

○

8)

- 38.5%

□

○

()

?’

* 강한 추진력으로 주위 우려를 극복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앞장

○

()

* '09년 석계리의 이장을 맡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매일 찾아가 문안 인사를 드리고 마을 사람들의 다툼도 조정하는 역할

○

()



박원복씨(중국)⁹⁾



조만숙씨 가족(중국)



마리아페씨(오른쪽, 필리핀)

8) (2009)

9) , ,

□

○

- 40 13.4ha ()

,

* 여주는 벼의 10배, 딸기 후작인 수박의 2배로 농가 소득을 보장할 정도로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

- () , , ,

,

,

□

○

,

- (,) ' ,

(')

- (,)

결혼 이민여성의 경제적 기반, 사회적 기업 '어울림'

▷ 다문화 가족의 자립 지원을 위해 설립된 전국 최초의 다문화 사회적 기업

- 홍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0년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 결혼
이민여성의 자립기반인 영농법인 '어울림'을 설립

-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결혼이민여성과 가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다문화
공동체 구축, 다문화 인식 개선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운영

IV.



- 21



* 가장 파괴력이 크며 중요하고 위험한 갈등이 상이한 문화적 배경에 속하는 사람들의 사이에서 등장(사무엘 헌팅턴, 1996)



Two-Track



-

(Landmark)

* 일본의 다문화정책같이 지역의 현황을 반영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형태의 도입도 검토할만한 사례

-



- , 2
- .
- ,
- , 2 , 2
- .

* 적응을 위한 언어 및 영농(생활)교육, 자녀양육, 문화갈등관리, 생활상담, 영농, 의료, 문화시설 등의 중복성 정책을 정리하고 통합화할 기회



(role model)



* 결혼이민여성들의 농가공품 생산공동체 조직을 결성하고 판로를 지원한 야마가타현(山形縣) 쓰루오카시(鶴岡市)의 **우메짱김치** 회사 등의 사례



CEO

-

RDA 인테러뱅
INTERROBANG

2011.1.12. 창간

발행인 :

편집인 : , , , ,

발행처 :

126()

031-299-1066

031-299-2899

인쇄처 :

02-426-4415

ISSN : 2233-5056

발간등록번호 : 11-1390000-002866-03

*

*